

정신력교육

강사: EBS 역사강사 정선아

1948년 7월 17일은 헌법을 공포함으로써 ‘민주공화국’이라는 국가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대한민국이 ‘법 위에’ 세워졌음을 선포한 역사적 기점이었다. 3·1운동의 민족 자결정신, 임시정부의 건국이념, 그리고 광복 이후 혼란 속에서도 ‘합의된 통치원칙’을 만들기 위한 국민들의 노력 속에 헌법이 태어났다. 그런 점에서 제헌절은 단지 과거를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질서, 권리와 책임의 근간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되새기는 날임을 잘 알아야 한다.

제헌헌법의 탄생 과정

광복 직후 남과 북은 각자의 체제 속에서 각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남한은 독립정부 수립을 위해 1948년 5월 10일 역사상 최초의 민주적 선거를 시행했고, 선출된 198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제헌국회는 단 한 가지 임무에 전념했다. 바로 헌법을 만드는 일이었다.

당시 제헌국회 의원들은 헌법기초위원

제헌절의 의미

회를 조직해 국내외 헌정 사례를 분석하고, 치열한 토론을 거쳐 헌법 초안을 마련했다. 대표적으로 참고한 사례는 미국의 성문헌법 체계, 독일 바이마르 헌법의 기본권 조항, 그리고 프랑스 공화국의 삼권분립 구조 등이었다. 이들 선진국의 헌정 경험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세운 법률적 설계를 완성했고, 이를 7월 17일 제헌헌법이라는 이름으로 공포하게 된다.



초대 국회는 제헌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법적 기틀을 세웠다.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역사관)

제헌헌법의 핵심 가치

제헌헌법의 전문(前文)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이 문장 하나에 대한

민국의 법통이 집약돼 있다.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제헌헌법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정통성이 명시된 것이다.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선언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와 같은 구절은 과거 군주제와 식민지 체제에서 완전히 단절하고, 국민을 국가의 주인으로 선언한 혁명적 문장이었다.

또한 제헌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보장했다. 신체의 자유, 재산권, 교육권, 근로권, 평등권 등은 단지 이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명문화된 실질적인 권리였고, 이는 당시로선 파격적이고 진보적인 내용이었다.



헌법 전문에는 헌법의 제정 이유와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국가기록원)

헌법에 명시된 ‘국군의 사명’

‘국군의 사명’은 제헌헌법에 처음 명시돼

발표/토의 주제

▶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권리’를 실생활에서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지 각자의 의견을 발표해 보자.

지금의 헌법까지 그 정신이 이어져 왔다. 헌법 제5조 2항에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명시해 국군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헌법이 없는 군대는 존재할 수 없으며, 군의 사명은 오로지 헌법에 의해 정당화된다. 따라서 군복을 입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헌법의 실현자이며 수호자다. 우리 국군 장병들은 ‘나라를 지킨다’는 사명이 외부로부터 적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역할 또한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의 자세

헌법은 단지 시험을 위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기준이고 살아가는 방식이다. 자유, 평등, 정의, 민주주의, 법치와 같은 가치는 종이 위 문장에 머무르지 않고 개인의 태도, 선택, 실천 속에서 현실이 된다. 제헌절은 지금 우리가 누구이며 어떤 나라를 지향해야 하는지 스스로 묻는 날이며, 군인은 그 질문 앞에서 가장 진지한 답을 품어야 할 사람임을 반드시 명심해야 하겠다.

<국방부 정책기획관실>

<국방부 정책기획관실>



국군 단독으로 거둔 압도적인 승리, 화령장전투

1950년 7월 중순에 접어들자 한때 파죽지세로 남하하던 북한군은 개전 초기 위력을 잃었으며, 진격 속도도 크게 저하됐다. 그러자 김일성은 전방부대까지 방문해 “정면뿐만 아니라 대담하게 우회 기동해 측면과 후방을 타격해 방어를 와해시키면서 공격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북한군의 빠른 진격을 강하게 독려했다. 반면 미8군사령관 워커 중장은 미군과 국군을 통합 지휘하면서 충북과 경북의 경계가 되는 소백산맥 산악지역을 바탕으로 북한군을 지연·저지하고자 했다.

완벽한 정보수집, 매복작전으로 적을 괴멸시키다

화령장은 경북 상주군 화서면에 있는 작은 마을로 충청북도 보은, 괴산과 경상북도 상주를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다. 7월 10일 경 충북 음성읍을 점령한 북한군 15사단은 주력인 45·48연대를 괴산·상주 방향으로 남하시켰다. 육군본부에서는 방어를 위해 제17연대를 이 방면으로 투입했다.

7월 16일, 17연대 1대대는 화령장 주민과 경찰로부터 북한군이 상주 방향으로 내려갔다는 정보를 입수한다. 여러 정황상 북한군 출현이 확실하다고 판단한 1대대장이관수 소령은 부대를 화령초등학교에 집결시키고 적 동향 정찰에 나섰다. 그러던 중 북한군 전령을 생포했고, 신문한 결과 북한군 48연대 주력이 7월 17일 오후 화령

장 인근에서 휴식을 취할 예정이란 것도 알게 됐다. 이에 1대대장은 이미 상주로 향한 북한군을 뒤쫓는 대신 북한군이 휴식을 취하려는 곳에 매복했다가 공격하기로 결심한다. 입수한 정보대로 북한군은 아군의 매복지 정면인 송계국민학교와 상곡리 일대에서 휴식을 취했고, 19시30분경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저녁 식사를 위해 집결지에 모여들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국군은 일제히 사격을 개시했고, 북한군은 제대로 된 저항도 하지 못하고 쓰러졌다.



화령장전투 호국기록화(전쟁기념관 소장)

연대원 전체가 1계급 특진의 영예 거둬

7월 18일, 제17연대장 김희준 중령은 조만간 북한군의 후속 부대인 45연대가 이곳을 통과할 것이란 결정적인 정보를 확보하게 됐다. 이에 화령장 북서쪽 동관리에서 적을 매복 공격하기로 하고 주요 지점마다 부대를 배치했다. 7월 21일 새벽 5시30분경 동



매년 국민과 함께하는 전승 기념행사를 통해 화령장전투의 의미를 상기하고 있다.

관리에서 전투가 시작됐다. 날이 밝고 안개가 걷혀 시야가 확보되자 도로변과 논밭에는 북한군의 시신과 장비가 즐비했고, 남은 적들은 사방으로 도주하기 시작했다. 전투를 지켜본 미 군사고문관 스카레기 소령이 “30년 군 생활 동안 이처럼 통쾌한 전투는 처음”이라고 감탄할 정도의 쾌승이었다.

7월 17일부터 25일까지 이어진 화령장 전투에서 북한군 제15사단은 2개 연대가 괴멸되는 참패를 당했으며, 병력과 장비 대부분을 상실했다. 이와 더불어 김일성의 지시대로 소백산맥의 험준한 산맥을 뚫고 상주를 점령한 후 일거에 대구로 진출하려던 북한군의 야심 찬 계획도 좌절됐다.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할 귀중한 시간을 벌 수 있었다. 제17연대는 연대장이하 전 부대원이 1계급 특진을 하는 특별한 영예를 얻었다.

발표/토의 주제

▶ 화령장전투의 가장 결정적인 승리 요인이 무엇인지 이야기해보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서로 의견을 공유해 보자.

화령장전투 승리의 요인으로 지역 주민과 경찰들의 협조, 적의 계획을 사전에 파악해 정보 우위를 바탕으로 유리한 지형을 선점한 것을 들 수 있다.

아울러 17연대원 모두는 대규모의 적이 눈앞까지 다가오는 긴박한 순간을 인내했다가 지휘관 지시에 따라 결정적인 공격을 가하는 강인한 정신력과 엄정한 군기를 보여줬다. 이 모든 요인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국군은 큰 전력 차를 극복하고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1950년 7월 당시 전선을 향해 행군하는 국군의 모습.